

◇관상동맥 우회도관 혈류량과 수술후 심실벽 운동 개선 여부간의 상관관계

박계현, 전태국, 박표원, 채현

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

배경 및 목적 : 관상동맥 우회수술시 측정된 우회도관의 혈류량은 수술후의 우회도관 개통율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지만 우회도관 혈류량과 수술 성적과의 관계를 분석한 몇몇 연구들은 뚜렷한 상관관계를 증명하지는 못하였다. 본 연구에서는 허혈성 심실벽 운동 이상의 수술후 개선 여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우회도관 혈류량 측정의 임상적 유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.

방법 : 관상동맥 우회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종료시 우회도관의 혈류량이 측정, 기록된 환자들중 수술전 가역적인 심실벽 운동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진단된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이들에게서 수술후 퇴원하기 전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상의 심실벽 운동 개선 여부와 해당 영역의 우회도관 혈류량 기록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. 19명에서는 퇴원후 2~16개월 경과시 심초음파 검사를 다시 시행하여 재평가가 가능하였다.

결과 : 가역적인 심실벽 운동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 78개 영역중 50개 [64.1%] 영역에서 수술후 조기에 심실벽 운동이 개선되었다. 해당 영역의 우회도관 혈류량이 30ml/min를 초과했던 경우에는 47개 영역중 37개 [78.7%]에서 심실벽 운동이 개선되었지만 30ml/min 이하였던 경우에는 31개 영역중 13개 [41.9%]만이 운동 개선을 보였다 [$p < 0.05$]. 외래 추적 기간중의 재평가지 심실벽 운동의 변화를 보인 경우를 합산하면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졌다 [89.4% vs. 38.7%]. 이런 양상은 내흉동맥 도관과 복재정맥 도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.

결론 : 관상동맥 우회수술중 우회도관의 혈류량을 측정하는 것이 수술후 심근 기능 회복 여부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혈류량 측정이 수술 후 환자 치료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수단임을 확인하였다. 한편 우회도관의 혈류량이 30ml/min 이하인 경우에는 수술에 따른 심근 기능 개선 효과가 충분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보다 면밀하고 적극적인 추적 및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.

책임저자: 박계현 (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) 발표자: 박계현 (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)